

#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ACC 2022 레지던시 결과전이 내년 2월 5일까지 복합전시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j.h.r의 '물처럼 살기'. (ACC 제공)

노자 '도덕경'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구절이 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는 뜻이다. 좀더 확장해보면 물처럼 사는 인생이 좋다는 의미다. 물은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에서 만나는 J.H.R의 '물처럼 살기'는 역설적으로 물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돌아보게 한다. J.H.R은 설치작가 정혜련과 미디어 작가 강대운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의 작품 '물처럼 살기'가 오늘의 시점에 환기되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물 부족 사태가 초래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물처럼 살기'는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의 본성을 일깨운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송금송금 맺힌 물의 입자는 아름다우면서도 역동적이다. 물의 입자들은 단순한 피상적 관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나아가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은 결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는 것 같다.

ACC 레지던시 결과전이 내년 2월 5일까지 복합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간과 비인간의 주체들이 공존하는 시대의 윤리를 모색하고 새로운 교감을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레지던시는 한국의 이인강, 채종혁, 인도의 셰일리시 비알,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고 마린 바리세뇨 등 모두 9개국 21팀(33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주제가 말해주듯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ACC 복합전시관 레지던시 결과전 인간·비인간 시대 윤리 모색 '조화 이루며 살 수 있는가' 탐색

이인강·비알 등 9개국 21팀 참여 내년 2월 5일까지 무료 관람

벗어나 타자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간과 기계, 비인간 주체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참가자들은 다가올 포스트 휴먼 시대를 위한 성찰과 실천적 대안에 머리를 맞댔다.

독일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올리버 그림과 러시아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다한으로 구성된 오묘한 '고스트 유토피아'는 두 개의 다른 세계로 구성된 가상현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제목이 강렬하고 상징적이다. 작가들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로 양분되는 서로 다른 세계를 가상현실로 재해석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 북한 이탈민 등처럼 전쟁과 민주화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됐다. 전쟁, 독재, 탄압이 엮여있는 사진을 기반으로 한 3D 환경이 구축된 것. 인간의 존엄성, 윤리, 책임과 같은 규범이 무너진 세계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표현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세계는 국가의 제도로부터 해방된 가상의 '영혼', '유령'을 상징한다. 삽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유령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상의 섬을 가상현실로 구현했다.

롬베라-쌍의 '부유하는 기억'은 시작이며 감성적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의 모티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모티브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리핀 어느 군도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으로 밝혀진 '검은 개' 설화와 관련돼 있다. 아울러 필리핀-미국 전쟁으로 죽은 20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참상과도 맞물려 있다.

'부유하는 기억'은 콜레라와 전쟁으로 사망자들을 집단으로 매장했던 필리핀 바탕가스 '타일' 지역의 호수를 카메라가 보여준다. 작가는 지역 주민과 함께 인근 숲에서 나무 한 그루를 벌목해 대나무 뿔뿔 위에 세웠다. 뿔뿔 위에 세워진 나무는 필리핀 설화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혼과의 동행을 상징한다.

한편 이에 앞서 레지던시 작가들은 지난 16일 연구 결과 발표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포스트 휴먼 몸 상상하기'를 주제로 예술극장에서 열렸으며 동태대 임소연 교수가 '태초에 살아 있었다: 사이보그 되기의 물질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연구자 유승아가 '사이보그적 존재들을 통해 본 포스트 휴먼의 몸 짓기'를 발표했으며 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인 이인강, 우령상, 이샘이 '몸, 기술, 여성'을 주제로 연구 과제물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관람은 무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SKY캐슬' 넘은 '재벌집 막내아들'

시청률 24.9%...JTBC 드라마 2위 순양그룹 일가 승계 싸움 본격화 '막방' 15·16회는 24·25일 방송

매주 인기가 치솟고 있는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시청률이 25%에 육박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재벌집 막내아들' 14회 시청률은 24.9%(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스카이 캐슬'(2018~2019) 최고 시청률 23.8%를 뛰어넘으면서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순위 2위에 올라섰다. 1위는 '부부의 세계'(2020) 28.4%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방영 첫 주에는 1회 6.1%에서 3회 10.8%로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했다. 둘째 주에는 4회 11.8%에서 6회 14.9%, 셋째 주에는 7회 16.1%, 8회 19.4%로 뛰면서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7.5%를 제쳤다. 넷째 주에는 9회 17.0%에서 11회 21.1%로 뛰면서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 처음으로 시청률 20%를 넘는 드라마로 등극했고, 다섯째 주에도 12회 19.8% 14회 24.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날 방송에서는 진양철(이성민 분) 회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순양그룹 일가의 승계 싸움이 본격화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카드대란'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진도준(송중기)은 진동기(조한철)에게 순양카드를 넘기면서 순양물산 지분을 담보로 확보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말미에는 진도준이 대리운전을 하다 길바닥으로 쫓겨난 자신의 원래 모습인 윤현우(송중기)를 마주치면서 앞으로 벌어질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총 16부작으로 금·토일 주 3회 편성된 드라마의 남은 회차 15·16회는 각각 토요일인 24일과 일요일인 25일 방송된다. 금요일인 23일에는 14회가 재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NCT 드림 '캔디' 선주문만 200만장

그룹 NCT 드림(사진)이 19일 발표한 겨울 스페셜 미니앨범 '캔디'(Candy)의 선주문량이 전날 기준 200만4천장을 넘어섰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발표한 정규 2집 '글리치 모드'(Glitch Mode)와 리패키지 음반 '비트박스'(Beatbox)로 361만장에 이르는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겨울 스페셜 앨범이 200만장이 넘는 선주문량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자평했다.

앨범에는 선배 그룹 H.O.T.의 동명의 명곡을 리메이크한 타이틀곡 '캔디'를 비롯해 '그래듀에이션'(Graduation), '탠저린 러브'(Tangerine Love), '입김', '문'(Moon) 등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여섯 곡이 담겼다.

이 중 타이틀곡 '캔디'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96년 당시 H.O.T.가 구현한 풋풋한 감성을 재현하면서도 2022년에 걸맞은 세련된 편곡이 인상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 보이그룹이 이차트 정상에 오른 사례는 빅뱅과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NCT 드림이 세 번째다. 막강한 음반 판매량에 이어 음원 경쟁력까지 입증함으로써 팬덤 외에 대중성까지 획득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유튜브와 틱톡 채널을 통해 겨울 스페셜 앨범 발매 기념 생방송을 진행하고 팬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 크리스마스이브엔 '양석승 힐링콘서트'

오후 2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제 36회 양석승(사진) 힐링콘서트'가 24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가수 채호의 사회로 진행되는 콘서트는 광주시 판소리 무형문화재 9호 이수자인 최미애가 히트춤

으로 무대를 열고 가수 채현과 김성배, 손희종, 김태이가 가요를 선보인다.

이어 양석승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장이 '한 많은 대동강', '사랑이 이런건가요'를 노래하고 신동석이 조항조의 '사랑꽃', 배호의 '황토길'을 올린다.

색소폰과 대금을 연주하는 채호는 대금 연주 및



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가요로 '가다리는 마음'과 '한 많은 무등산'을 무대에 올리고 중요무형문화재 판연유가 '채타령'과 '까치가 울면' 등을 선보인다. 무대가 마친 후에는 양석승 소장의 유머 및 힐링 강의로 이어지며 행운권 추첨도 마련돼 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